

## 안철수 1차투표서 과반 넘겨 압승

국민의당 새 대표 선출 ... 안, 2만9095표 51.09% 얻어  
내년 지방선거 '안철수 브랜드' 필요 ... 호남 표심 결집

국민의당 새로운 대표에 안철수 후보가 27일 선출됐다. <관련기사 3면>

안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2만9095표(51.09%)를 얻어 과반 이상의 득표에 성공, 결선투표 없이 국민의당 대표에 당선됐다. 정동영 후보는 1만6151표(28.36%)를 얻어 다음 선전한 반면, 천정배 후보는 기대에 못 미치는 9456표(16.60%)를 얻는데 그쳤고, 이연주 후보는 2251표(3.95%)를 얻어 고배를 마셨다.

안 후보는 작년 6월 홍보비 리베이트 파동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1년 2개월 만에 국민의당 대표에 복귀했다. 또 지난 5·9 대선에서 패배한 지 110일 만에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게 됐다. 안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과 국민의당 공동대표 경험까지 합치면 세 번째 당 대표를 맡는 셈이지만 선출직은 처음이다.

안 대표는 이날 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여러분께서 다시 국민 속으로 뛰도록 정치적 생명을 주셨다"며 "당원들이 보내준 지지, 그 의미를 새겨 당을 혁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당원 투표에서 안 대표가 과반 이상의 지지를 확보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안철수'라는 상징적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결집된 것으로 풀이된다.

### 국민의당 8·27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자 득표

기호	이름	총 득표수	득표율
1	안철수	2만9천95표	51.09%
2	이연주	2천251표	3.95%
3	정동영	1만6천151표	28.36%
4	천정배	9천456표	16.6%

특히, 호남 민심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이 출범하는 안철수 체제의 국민의당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 권위, 혁신 행보에 호남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이 고공 행진하고 있지만 호남 민심이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경쟁 체제'의 효과를 체험했다는 점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이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느냐 따라 판세가 요동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대선 패배 이후, 당권 도전이라는 정치적 명운을 건 도전에 성공한 안 대표지만 그의 앞에 놓인 과제는 산적한 상황이다.

한편, 최고위원 선거에선 박주원·장진영 후보가 당선됐으며, 전국여성위원장은 이태우 후보가 당선됐다. 이날 선출된 지도부의 임기는 2019년 1월14일까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의당 안철수 새 대표가 27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시 전국당원대표자대회에서 당 대표에 선출된 뒤 축하 꽃다발을 들고 당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도시공원 일몰제 '광주형 해법' 찾는다

시민단체·전문가·시청 관련 부서 민·관 협의시스템 구축

### 30일 첫 회의 개최

진동 끝에 도시공원의 보존과 조성, 적정한 개발 등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가 구성됐다. 단일 사안을 두고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광주시청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시스템 구축은 사실상 최하다. <관련기사 3면>

2020년 일몰제를 앞두고 고층 아파트 단지 조성이 우려됐던 도시공원에 대한 '광주형 해법'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규모 재원의 마련, 중앙정부의 미온적 태도, 오랜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공원 내 토지소유주 및 개발업체와의 이해 대립, 협의 시간 부족 등이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27일 광주시,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교수 등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0명, 시의원 2명, 도시공원 관련 광주시청 실·국장 4명 등 16명이 참가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 거버넌스'가 오는 30일 첫 회의를 갖는다. 관련 실·과장 9명이 배석하게 되며, 박병호 행정부시장과 민간위원 중 한 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2주 1회 이상 도시공원과 관련 회의를 갖게 된다.

시는 그동안 일몰제 대상 광주시역 내 장기미집행공원 25곳 가운데 10개 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적용시켜 공원의 30% 미만을 고층 아파트단지로 조성하는 대신 나머지 70% 이상을 공원으로 보존 및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가 지나치게 큰 개발 면적 및 규모, 도시공원의 혜택을 받았던 인근 주민, 시민 등에 대한 고려 미흡, 다양한 대안 검토 미진 등을 이유로 시의 방침에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1단계 사업대상인 수광·마복·송암·봉산 등 4곳에 접수기한이 오는 9월 8일

한스컴퓨터 국가유공자 길 열리나 ▶6면

원전 한빛4호기 안전성 논란 ▶18면

메이웨더, 맥그리거에 TKO승 ▶20면

로 다가오면서 시가 민·관 거버넌스 구성에 나섰으나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거버넌스의 역할과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면서 참여를 거부하기도 했다. 지난 25일 시가 전격적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민·관 거버넌스는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오는 9월 8일까지 제안서 접수, 9월 제안서 평가 및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등 행정 절차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하고, 중앙·중외·일곡·영산강 대상 등 주요 공원 6곳을 포함하고 있는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방향을 보완해 추진하게 된다.

우선 중앙, 중외, 일곡 등 대형공원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에 대한 전액 국비지원을 건의하고, 숲 밑도나 높이 등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일부 공원을 해제해 개발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시공원과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토지 임대제, 토지는 행정(LE)에 사업 신청해 선정 시 가능 ▲시민 참여를 위한 토지기부제 등도 협의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지난 7월 21일부터 매주 한 차례 도시공원을 위한 준비모임을 갖고 25개 공원의 보존·조성·개발 등에 대한 방안을 연구해온 바 있다.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도시공원을 고층아파트 개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존과 활용의 대상으로 보면서 시민 모두가 그로 인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버넌스에 참여하게 됐다"며 "자원, 시간 등 여러 가지 제한은 있으나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국방부, 5·18 진상규명에 행불자 소재 파악·집단매장지 발굴 추가

"해병대 광주로 2시간 이동하다 철수" "군산비행장서 실탄 지급받고 출동 대기" 증언 잇따라

국방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 소재파악과 집단매장지 발굴을 진상규명 내용에 추가하기로 했다. 광주항쟁에 진상규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당 손금주(나주·화순) 의원의 5·18 행불자 소재파악 및 집단매장지 발굴 계획 질의에 "검토해서 진상조사에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송 장관은 곧 출범할 특별조사단의 명칭은 5·18민주화운동

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단'이라고 설명했다.

5·18 관련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5·18 기념재단은 27일 "최근 한달간 5·18 관련 제보 건수가 수백건에 이른다"며 "해병대 투입, 전일빌딩 헬기사격 등 의미있는 제보도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게 지난 24일 "1980년 5월 목포 지역으로 출동 명령을 받은 적이 없고 출동한 사실도 없다"고 발표한 해병대사령부의 입장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해병대사령부는 5·18 재단이 같은날 공

개한 '광주 소요가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마산 주둔 해병 1사단 1개 대대를 목표로 이동 예정'이 적힌 군 관련 문건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25일 자살을 5·18 당시 포항에서 근무하던 해병대 사병이라고 밝힌 한 남성은 5·18재단에 전화를 걸어 "1980년 5월 17일이나 18일쯤 광주로 투입하기 위해 2시간 정도 이동하다 철수 명령이 떨어져 되돌아 간 적이 있다"며 "같이 출동한 사병들 사이에서 '광주 폭도들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다'는 말을 들었

다"고 제보했다. 마산과 포항에 주둔하는 해병대는 같은 1사단 소속으로, 해병대사령부의 발표 내용과는 상반된다.

또 전북 정읍시에서도 군인들이 민간인을 제압하기 위해 무장한 채 출동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군산비행장 소속 하사관이었다는 한 남성은 최근 5·18재단에 전화로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1980년 5월 때 '폭도들이 정읍에 자라한 임시활주로를 점령하니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고 실탄을 지급받은 후 출동했지만 10분 후 다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더불어사는 광주  
행복한 시민

재능과 자원을 나누는

## 빛고을 광주는 공유도시입니다

명사와 손재주꾼들의 강연 기부

빛고을 열린강연

### 아리바다

arribada.gwangju.go.kr

각종 물품·회의실·주차장 무료대여

SHARED Gwangju

### 공유광주

www.sharegj.kr

이 땅에 뿌리내린 공유의 가치,  
광주는 **더불어 사는 행복 공동체**입니다.

광주광역시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가톨릭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수시모집 9.11(화)~15(금) 062-605-1114